

2022학년도

제12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공개용)



■ 일 자 : 2022. 12. 29.(목) 오후 15시 00분

■ 장 소 : 양캠퍼스 화상회의실[화상회의]

| 결<br>재 | 간 사 | 의 장 |
|--------|-----|-----|
|        |     |     |

명 지 대 학 교

# 2022학년도 제12차 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공개용)

■ 일 시 : 2022. 12. 29.(목) 15:00 ~ 17:50

■ 장 소 : 양캠퍼스 화상회의실[화상회의]

■ 참석평의원 : 김진환, 이정현, 김용달, 이대욱, 최정현, 변상범 (이상 6명)

■ 불참평의원 : 이상현, 최현선, 엄세빈, 유석희, 이순식(이상 5명)

■ 배 석 자 : ○○○ 부총장, 기획예산팀 ○○○(임시 간사), ○○○

■ 성 원 : 재적평의원 11명 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됨.

■ 안 건 :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폐합 추진에 관한 심의

## ■ 심의내용

- 의장 : 2022학년도 12차 대학평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고, 임시 간사(이하 ‘간사’)에게 성원 보고 요청
- 간사 : 재적평의원 11명중 6명이 참석하여 성원 되었음을 보고함
- 의장 : 바로 안건 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음. 오늘 회의 개최와 관련해서 부총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음
- ○○○ 부총장 : 오늘 회의는 총장님께서 재심의를 한 번 요청하셨고, 이를 평의위원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이 받아들이셔서 열리는 평의원회임. 총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회의의 배경 설명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였음. 오늘 회의에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함. 대학 통합 신청서를 어제 온라인으로, 오늘 2시경에 오프라인으로 접수하였으며 첨부서류에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기록을 제출하였음. 지난 평의위원회가 6대 1로 통합 안건에 대한 심의가 부결되었는데 이를 다시 한번 심의하도록 총장님이 요청하셨으며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된 배경임. 대학 본부에서도 최선을 다해 교직원의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으며, 마감결과 교원은 85%, 직원은 95% 정도의 동의율을 얻었음. 이런 점을 고려하여 구성원 단체인 대표분들께서 재심의를 해주시기를 총장님께서 요청하셨음. 지난 대학 통합 사례를 살펴보면 어떤 규격에 맞춰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이 되고 통합 승인이 나는 시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천차만별이었음. 우리 학교는 타 학교들에 비해 월등한 동의율을 얻었음. 그리고 이번에 규제 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정원이 유리하게 조정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신청서를 내야할지 그것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으나, 그 때 대학평의위원회의 결정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 타학교의 경우 어떤 단서 조항 없이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단서 조항을 달아서 의견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단서조항 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임. 계속 회의에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의장에게 질문함
- 의장 : 다른 평의원님들의 의견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음. 오늘 회의 소집과 관련한 규정을 먼저 확인을 하겠음.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제3장 회의에 대해서

제3장 7조에 보면 7조 3항에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위의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고 해서 첫 번째로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라고 하는 조항이 있음. 의장이 소집을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집을 해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하였고, 오늘 재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되었음. 평의원님들께서 부총장님께 질문하실 사항을 질문해 주시기를 바람

- ○○○ 평의원 : 일단 재소집권에 대해서 이후에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총장님께는 먼저 질문을 드리겠음. 지난 평의원회 회의에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재소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고, 부총장님께 그 당시에 신청서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까라고 여쭙봤었음. 하지만 변경이 없는 신청서는 없다고 생각하고 온라인 제출은 했지만 다른 학교 사례를 보니 여러 번 수정 보완 제출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또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시점에 모든 것이 종료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함. 그래서 그 당시 변동 가능성이나 재소집 등등을 말씀드렸던 것임. 여전히 그 질문은 유효하다 생각함. 이미 신청서가 온라인 제출되었지만 구성원을 대표하는 하나의 조직 대표로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도 수정 보완해서 제출해야 될 기회가 있고 교육부에서도 정원 조정 관련해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함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아 보완 제출할 필요성도 발생하게 되고 내부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도 더 좋은 안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와 관련하여 부총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 부총장 : 저도 얼마 되지 않아 다 기억을 하고 있음. 그 때 일단 수정은 없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이번에 제출되는 통합 승인 신청서는 물리적으로 수정할 수도 없다고 답변을 드린 것으로 정확히 기억함.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 교육부의 설립심사위원회에서 어떤 수정사항 요구를 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음. 최근 국립대와 국립대가 통합한 사례가 지방에서 있었다고 함. 사립대 통합보다는 쉽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그 때 설립심사위원회가 9번 열렸다고 함. 시기와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들도 다 다르고 교육부에서도 수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 것 같음. 이번에 통합신청서를 낼 때 맨 앞장의 제출문과 안에 내용에는 이번 교육부 규제 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표시하고 코멘트를 달았고 우리 건의 심사 중에 그것이 입법화가 되면 그것에 맞춰서 수정 계획서를 내겠다라고 명문화를 하였음. 신청서에 당연히 수정을 있을 것이고 규제 개혁안에 따르면 전문대에서 4년제로 바뀌는 인원이 약 200여명이 증가할 것임. 200여명 증가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앞으로 논의도 해야 하는 등 수정이 계속 있을 것임. 나름대로 공청회나 간담회를 타대학에 비해 굉장히 많이 했다고 자부하지만 반대편에서는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으며 최선을 다해서 소통을 하며 수정해 나가겠음
- ○○○ 평의원 : 계속 이어서 질문해도 좋을지 의장에게 질문함

- 의장 : 질문해도 좋음
- ○○○ 평의원 : 일단 신청서 내용 일부 변경 가능성에 대해 여쭙어 보았고, 재소집 관련해서 질문하겠음. 재소집의 상황이 실제 발생한 것인지는 먼저 이야기가 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부총장님 퇴장 후에 논의를 하는 것으로 미루겠음. 두 번째는 명지대학교 내부의 어떤 상황 변동에 따라 재소집 필요성이 생겼느냐는 질문이 있고, 명지대학교 외부의 환경 변화로 인해 평의원회 재소집 사안이 발생했느냐가 있음. 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때 지난 평의원회 날 또는 그 다음날 교육부에서 정원 자율화와 전문대와의 통합 관련해서 정원의 위헌적 적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계획들이 발표가 되었고 그런 변동 가능성에 따라서 신청계획서 그리고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내의 구성원 조직들이 각각 견지해왔던 입장 변화 또 대학 본부 측에서도 통합을 둘러싸고 재고를 해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교육부 방침대로 이론적으로 실행된다고 하면 200여명 정원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함. 200여명의 정원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음. 폐과 대상인 과를 회생시킬 수 있는 숫자도 확보될 수 있을지도 모르고 200명을 전체적으로 재조정하면서 다른 변동들이 발생할 수도 있음. 이런 정원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걸 이후에 어떻게 반영할 계획이신지까지 두 번째 질문으로 여쭙보고 싶음
- ○○○ 부총장 : 교육부 발표는 일단 학교 측에서 좋은 소식임. 교육부와 이것에 대해 어제 전화로 논의를 하였고 결론은 명지대 내부 사정이 있으니까 접수일은 22년으로 해서 내고 교육부에서 법제화가 되는 스케줄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래서 일단 서둘러서 올해 안으로 제출하였음. 정원 증가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현재로서는 생각해볼 수 없었음. 이것은 그때가 돼서 새로운 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 평의원 : 우리 명지법인과 학교 입장에서는 200여명의 입학 정원을 증가시킬 수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 두 번째 질문이 회의 재소집과 관련해서 외부 환경의 변화가 재소집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 중요한 재소집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함. 세 번째 질문으로 그러면 명지대학교 내부에서 재소집의 당위성 필요성이 발생하는지임. 총장님께서 소집을 요청하신 것은 규정에 있으니 소집이 발동되었고 의장님도 소집을 하셨습니다만 소집을 요청하신 분의 의사대로 진행되는 것은 확정할 수 없을 것임. 그 시점에서 재소집을 요청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내부의 상황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여쭙보고 의장님께도 한번 요청을 드린 바가 있음. 그 당시에는 재소집 요인이 없다고 봤었는데 그 이후 오늘 오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음. 첫 번째, 지난 번 회의와 연관되지는 않겠지만 공청회 이후 교원과 직원 공히 개별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었고 개인적으로 절차가 정당

하고 잘 진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95%, 85%의 동의를 받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가 개별 조직 내에서의 고민거리로 등장한 것은 맞음. 여기 평의원님도 개별 구성원들의 요구를 어떻게 반영해야 되느냐의 고민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임. 그것이 첫 번째 변동 사유 중 하나일 수 있고 두 번째로 총장님과 부총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철학과와 바독학과에서도 장문의 탄원서를 총장님과 부총장님 여러 분들께 발송하였음. 폐과 대상인 두 과의 모든 교수님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확인이 되었고, 어찌보면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을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함. 그런 탄원서에는 그 과들의 자구 노력과 폐과 이외의 다른 옵션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하는 고민들을 집대성 하기도 했고 이것에 대해서 학교가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고 오늘 회의가 소집되어야 재소집에 대한 내적인 이유가 충분히 발생한 것이 아니냐고 생각을 함. 하지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듣지 못함. 지난 주에 총장님이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그것은 사적인 말씀이셨고 저도 사적인 말씀으로만 접수를 하였음. 지난 번 회의 때 부총장님께 통합 신청서를 수정할 수 없는지 질문했을 때 절차상, 일정상 수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였지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외부 상황과 내부 구성원들도 간절함 등도 달라졌고, 또 구성원들의 우려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나 여러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내년에 시간 여유가 확보된다고 했을 때 구성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안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이런 정도의 약속은 총장님과 대학 본부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함. 지금 통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제출한 통합 신청서를 12월 29일 시점에서 바꾸라고 요청은 못하겠으나 적어도 그 과의 구성원이라고 하면 학교 측의 공식이나 비공식인 말씀을 기대하고 있을 것임. 이것에 대해 부총장님께 여쭙보고 싶음

- ○○○ 부총장 : 지금 말씀하신 2개 학과 교수님들이 중지를 모으셔서 총장님께 그룹웨어를 보내셨음. 총장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은 공유해야겠다 생각하셔서 저와 ○○○ 부총장, 기획실장, 교육지원처장 4명에게 전달을 해주셨고 메일을 읽어보고 나중에 의견을 얘기하자고 말씀하셨었음. 그게 2-3일 전이었고 제출 기한이 있어서 통합 신청서는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두 편지는 모두 읽어본 상황임. 제출을 했으니 교육부에서 서류 심사위원단을 만들어서 첫 번째 수정사항이 오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총장님께서 1월 출장계획이 있으셔서 다녀오신 이후에 한번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함
- 의장 :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곤란하시겠지만, 부총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신지 질문함. 왜냐하면 이런 것 자체가 오늘 회의 의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함
- ○○○ 부총장 : 부총장 입장인만큼 평의원회를 앞두고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으나 지금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을 말씀드리기

는 어려울 것 같음. 정말 죄송하지만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함. ○○○ 평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정과정에서 설립심사위원회에서 규제 완화에 따른 정원 증가 이런 것에 따라 수정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함. 학교가 지금 힘든 상황이기에 불가능할지도 모르지만 24년 3월에 통합대학교를 개교를 하고 싶음. 지금 전문대가 영향을 받아서 휴학생이 급증하고 있고 등록금 수입이 약 30%정도 감소해서 어려운 상황임. 전문대 학생들은 휴학하고 내년엔 전문대 입학예정 학생들이 문의전화를 명지대학교 입학처로 하고 있음. 통합을 빨리 하면 좋겠는데, 규제 개혁을 무시하고 했다가 정원을 200명 손해볼 수도 있고 이걸 따라가자니 통합이 25년 3월로 늦어지면 어려운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게 전문대와 명지대 모두 너무 힘든 상황임.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

- 의장 : 부총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음. 24년 개교로 노력하신다고 하였고, 빨리 됐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저희도 마찬가지임. 개교를 위해서 최종 승인 시점은 어느 시점까지 되어야 하는지 질문함
- ○○○ 부총장 : 24학년도 수시가 내년 3월과 가을에 시작이 되므로 입학처의 얘기로는 내년 5월말까지는 승인 결정이 나와 된다고 함. 총장님께서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의, 지지서명 이런 것을 다 들고 ○○○ ○○을 찾아가겠다 회생도 있고하니 통합 심사위원회도 빨리 해서 내년엔 되게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음. 저는 규제 개혁안까지 포함해서 하려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총장님께서 해보시겠다고 하니 저희도 해봐야함
- 의장 : 답변 감사함. 다른 평의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평의원 : 그런 환경이나 조건이라면 지금 교육부 대학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전문대와 통합 또는 대학간 통합이 대학 정책의 첫 번째 사례로서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외에 다른 대학간의 통합 추진하거나 경쟁할만한 움직임이 있는지 질문함
- ○○○ 부총장 : 매스컴에 나온 것 이외에는 잘 모름. 하지만 삼일회계법인의 인원이 ○○대와 ○○대 통합을 맡아서 ○○대로 이동했음. 매스컴에 나왔듯 숭실대와 문경대가 얘기가 나오고 있음. 올해 4-5월 경에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서 간담회를 했고 그 당시 정책과장이었던 ○○○ 과장이 통폐합 의사를 밝히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문의한 건의 40건 정도 된다고 했었음.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하는 것이니 힘드시겠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이만 퇴실하겠습니다
- 의장 : 부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부총장 퇴장)
- ○○○ 평의원 : 오늘 회의가 통합 신청서에 관련한 것이고 통합 신청서 내용에서 일부 변경이 있었다고 하니 신청서는 봐야 할 것임
- 의장 : 동의함

- ○○○ 평의원 : 동의함
- 의장 : 자료 준비된 것 배부 부탁함
- (회의 자료 배부)
- ○○○ 평의원 : 지금 인문캠퍼스에서 받은 건 2장짜리 자료인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질문함
- 간사 : 2장이 맞고, 오늘 간사님이 교육부 자료 제출로 자리를 비우셔서 전해 들은 바에 의하면 이번 신청서에 제출문 한 장이 추가되었고 내용은 교육부 대학 규제 개혁 완화 정책에 따른 향후 내용을 담고 있음. 뒷장의 박스안의 숫자는 변경이 된 것은 아니고 밑에 ※표시로 된 부분에 제출문 하단의 내용을 담았음
- ○○○ 평의원 : 온라인으로 제출된 것이 이 내용이 전부인지 질문함
- 간사 : 온라인으로 전체 서류 제출을 하였고, 지난 번에 삼일회계법인에서 신청서 설명을 했던 것 외에 추가로 변경되어 제출된 부분을 오늘 2장으로 보여드립니다
- ○○○ 평의원 : 제가 여쭙보는 이유는 지난 번 평의원회에서 이야기되었던 숫자가 틀려서 수정된 내용과 또 거기에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어제 온라인으로 공식 제출된 안을 봐야 한다고 생각함. 전체 내용의 신청서를 볼 수 있는지 질의함
- 간사 :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고 ○○○ 팀장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음
- ○○○ 평의원 : 지금 학교측에 요청해야 될 건이 여러 건이 생길 것 같음. 이것을 개별적으로 ○○○ 팀장님과 통화하면 회의가 계속 중단 될 것이므로 회의를 진행을 다 하고 한꺼번에 모아서 요청을 하거나 통화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음
- 의장 : 그렇다면 요구할 사항들을 수집하도록 하겠음. 평의원님들께서 제안을 해주시길 바람
- ○○○ 평의원 : 첫 번째로 어제 온라인 접수된 통폐합 신청서 풀 버전을 보여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회의가 재소집이므로 지난 번 회의의 회의록이 검토되어야 함. 회의록 내용과 재소집 요청 사유 등등이 검토되어야 하는데, 지난 주에 회의록 초안을 작성해서 회람을 하였고 저는 문장 문구 하나 수정 요청을 하였으나 답변을 못들었음. 지난 번 회의록에 담겨있는 것을 확인해야 오늘 재소집의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므로 회의록도 요청드립니다
- 의장 : 회의록은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어있고 파일 업로드가 되어있음. ○○○ 평의원님께서도 회의록에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결을 해야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회의록이 필요하시다는 의견이심
- ○○○ 평의원 : 맞다고 대답함

- 의장 : 다른 평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신지 물어봄
- ○○○ 평의원 : 또 하나 의견이 있음. 2022년도 대학평의원회 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여기 계신 평의원님들의 임기도 12월이 마지막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수협의회장이 되고 나서도 전임 집행부가 몇 달 동안 대학평의원회 평의원으로 잔류가 되었으면 전임과 현임 사이에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었고 내년 2월까지가 ○○교수협의회장 임기이므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게 되는 것임. 지금 각 구성원 조직의 기존 집행부와 신입 집행부 임기를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그것들을 통일시키고 대학평의원회 정관에도 평의원들 선임과 역할 해임 관련한 규정들을 맞추어 필요가 있을 것 같음. 일반적으로는 연도 기준으로 하지만 대학의 경우에는 학기 기준으로 많이 하니, 평의원회 임기를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함. 평의원회 평의원의 임기를 현실적으로 변동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주시고, 이것을 이번 평의원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면 추후 과제로 남기고 명문화 해서 검토를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 ○○○ 평의원 : 평의원회 규정 관련해서는 이번에 긴급으로 제안드리려고 했던 부분임. ○○○ 평의원님 말씀대로 임기도 그렇고 규정상 교원과 직원 평의원회 추천 부분도 규정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평의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해서 학교 측에 규정 개정 요청을 하는 것을 제안하려고 하였음. 교원은 조교수, 부교수, 교수 중에서 직원은 6,5,4급 중에서 각 1명 이상씩을 추천해야 한다고 되어있고 2배수 이상으로 추천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현실과는 맞지 않음. 직급이나 2배수 추천에 대해서 학교측에 개정 요청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음
- 의장 : 규정상에는 평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평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있어서 오늘 의결할 수는 없음
- 간사 : 보통 학생회는 11월 말까지 선출이 되어서 12월에 시작을 함. 2월까지 평의원회 임기가 된다면 전임학생회는 참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 1월 1일로 시작되는 기준이 된 것 같음
- 의장 : 그 부분도 현실에 맞게 개정이 필요할 것 같음. 평의원회가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차기로 넘어가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으니 그런 것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평의원님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의견이 없어서 잠시 정회를 하기로 함. 10분 뒤 다시 개회하겠습니다.
- (정회)
- 의장 : 다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번 통합 승인 신청서와 달라진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간사 : 통화를 해서 내용을 확인하였음. 숫자의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였고 추가 제출문과 ※로 되어있는 부분이 추가되었음.
- (1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및 통합신청서 제출본 배부 및 평의원들 검토)
- ○○○ 평의원 : 통합신청서를 보고 있는데, 우리 학교는 교수와 모든 구



성원들을 너무 똑똑하게 간주하시는 것 같음. 직전에서야 PPT를 보고 즉석에서 판단하면 되지 않냐고 여러 번 공청회에서 얘기하셨고, 지금도 한 부를 주시고 이 자리에서 뭘 하라 그러시는데 주위가 산만해서 쉽지가 않음. 신청된 것이기 때문에 통추위 사이트에 업로드 시켜주시고 구성원들이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함. 평의원회 차원에서 신청서를 통추위 사이트에 공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의장 : 그렇게 요청을 하면 가능한건지 문의함
- ○○○ 평의원 : 강제력은 받지는 않겠지만 평의원회가 요청은 하는 것임
- 의장 : 신청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저번에는 2,527이라는 숫자가 있었는데 이번 신청서에는 찾을 수가 없음
- 간사 : 앞 쪽에 있음. 숫자는 확인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숫자는 동일함
- 의장 : 확인하였음. 지난 번 공대 정원 숫자가 바뀐 부분은 수정이 된 것으로 확인함. 통폐합 신청서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 평의원께서는 평의원회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해 주시기를 제안하셨음
- ○○○ 평의원 : 동의함
- ○○○ 평의원 : 지난 번 평의원회 회의에서 봤던 통폐합 신청서가 이것이 맞는지 질문함
- 간사 : 맞다고 확인함
- ○○○ 평의원 : 그 때도 입학정원 감축계획이 19학년도에서 24학년도로 되어 있었는지 질문함. 25학년도가 아니었는지 질문함. 모든 공청회나 설명회 때 2025년 통합으로 들었던 것 같고 지금 2024년 통합으로 1년을 당기게 됐는데 지난 번에 그것을 놓쳤었는지 질문함
- 의장 : 저도 2025년으로 기억하고 있음
- ○○○ 평의원 : 저도 25년으로 기억함
- ○○○ 평의원 : 지난 번에 단체로 잘못 본 것인지, 25년 통합 신청으로 들었는데 24년 통합이 되면 1년 빨라지게 되는 것임. 부총장님께서도 24년이라고 말씀하심
- ○○○ 평의원 : 지난 평의원회 회의록 6페이지를 보면 명지전문대와 통합이 되는 2025학년에 전문대 학적을 유지한 학생들은 몇 년간 유지되는가를 질문했었기 때문에 그 때는 2025학년도에 맞았던 것 같음. 지금 올라간 거는 바뀐 내용같음
- ○○○ 평의원 : 그 때 분명히 아까 부총장님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했었음.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재정 문제로 볼 때 25년 통합되면 전문대 학생을 언제 특별 편입받을지를 질문을 했었고 2년 정도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지난 번까지 25년이었는데 갑자기 1년이 빨라진 것임. 문제는 대학평의원회가 아무리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평의원회에서 25년에 통합한다고 하고 갑자기 신청은 24년으로 하는 것임. 그러면 지난 번 저희가 했던 것은 사실상 효력이 없는 셈이 되는 것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가 의문스러움
- 의장 :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회의록 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연도가 나와있음. 신청서에도 지금 나와있는지 질문함

- ○○○ 평의원 : 지금 신청서와 추가로 나눠주신 자료를 보면 입학정원 감축 계획이 19학년도에서 24학년도로 되어 있음. 지난 번에도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이를 확인해야 함. 지난 번에도 이렇게 되어있었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지는 않음
- 의장 : 지난 번에도 이렇게 되어있었는지 확인을 부탁함
- 간사 :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겠음
- ○○○ 평의원 : 지금까지 여러 공청회에서 25년이라고 얘기를 했었음.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음
- 의장 : 통폐합 기준이 25학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확인함.
- ○○○ 평의원 :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음
- ○○○ 평의원 : 일단 연도 확인은 별개로 하고, 조건 변화와 상황 변화들이 생겼기 때문에 제출된 신청서를 보완해야 하는 작업들이 내년에도 이루어질 수 밖에 없음. 보완을 내실있고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기 제출된 신청서가 공개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검토와 개선 의견들이 수집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이런 취지에서 통폐합 승인 신청서를 통추위 사이트에 같이 업로드 해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대학 본부와 통추위에서는 다른 해석을 하실 수도 있으나 평의원회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해야 함
- 의장 : ○○○ 평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람. 동의 제청 절차가 필요할 것 같음
- ○○○ 평의원 : 동의함
- ○○○ 평의원 : 동의 제청함
- 의장 : 신청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은 요청하기로 함
- (간사 1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자료를 확인하고 24년 통합임을 확인)
- 의장 : 제가 지난 번 회의에서 23,24,25년은 있는데 왜 26년은 빠져있냐고 질문했었고 양식에 5개로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셨음. 지금 이 내용도 변경이 되었는데 이걸 수정을 안했다고 말씀하실 수 없음
- 간사 : 이 부분 확인을 해보겠음
- ○○○ 평의원 : 통합이 24년인지 25년인지는 중요하지만 이 회의 진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아닌 것 같음. 24년에 통합을 시도할 것이라 하면 사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역으로 기존의 신청서를 못 바꿀 이유도 되지만 또 바뀌야 될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그것은 별도로 확인하고 처리하시는 것을 제안함
- 의장 : 그렇게 하겠음. 일단 24년 개교를 위해 최종 승인 시점을 23년 5월이라고 하셨음. 위에서 말씀하신 외부 환경 변화라는 부분, 교육부 보도자료 때문에 나온 개정안이 통과되는 시점이 빨라도 3월로 알고 있음
- ○○○ 평의원: 통상적으로 5월은 정원 조정 지침이 내려오는 시기이며 대교협에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 8월까지임. 교육부도 2024년 통합을 반영한다고 할 때 5월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 있음
- 간사 : 현재 삼일과는 통화가 되지 않아 이 부분은 ○○○ 팀장님 확인 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평의원님께서 아까 요청하신 지난 번 회의록과 신청서 변동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 안을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재 논의가 필요함. 규정에는 일사부재리에 대한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적 내용이고 다시 한 번 같은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 중임. ○○○ 평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기를 요청함
- ○○○ 평의원 : 아까도 말씀드리고 지난 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 표결을 하게되면 동일한 사안과 관련해서 상황 변화가 없는 이상 재회의를 소집하거나 의결을 시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총장님께도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외적인 상황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어 교육부 지침으로 정원 변화가 있고 정원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등등 처리 결과에 따라 학과의 정원 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될 수 있기에 논의가 될 수 있음. 그러나 교육부의 정책이 우리의 신청서 또는 향후 내년도 정원 조정 관련해서 어떻게 반영할지 학교의 구체적 방침이 없는 한 그것에 대해 조직 구성원들이 의사 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외적 환경 변화가 오늘 회의 소집과 의결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투표를 해야될 정도의 필수적인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함. 내적인 변화로 돌아가면 철학과와 바둑학과 교수님들이 탄원서를 정성을 다해 준비하셨고 내용들이 학교에 전달이 되었음. 그것에 대하여 학교측이 신청서 수정을 떠나서 향후에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내년에 최선을 다해서 반영을 하겠다 하고 구성원들의 일부의 불안함과 상처를 보듬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어야 함. 학교 책임자의 진정성 있는 약속 등을 기대했었음. 이런 이야기들을 구성원들이 알게 되면 동의를 할 때 의견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고민을 했을 것임. 오늘 구성원 동의율이 85%, 95%가 되었는데, 이것을 중요한 사안 전환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을 것임. 그러나 지난 주 의결을 할때와 구체적인 숫자만 다를 뿐 큰 추세상으로는 다르지 않았음. 그렇게 보면 외적인 변화가 당장 정원 조정에 미치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표결할 수 없는 점, 그리고 두 과의 탄원서에 대해 학교 측이 어떤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표결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개별적 동의에 대해서도 지난 주에도 그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 표결에 조직 대표들이 고려하지 않은 것이 아니더라는 이 세 가지 사안을 생각하면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함. 정관에 총장님께서 대학평의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셨음. 그 요청을 의장님께서 받아들이면서 오늘 회의가 소집되었고 과반수에 해당되는 평의원님들이 총장님의 요청과 의장님의 재소집 요청을 성실하게 호응하면서 이 자리가 만들어졌지만 총장님의 재소집 논의가 제 의견까지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소집을 요청함으로써 총장님이 하실 수 있는 정관상의 권한들은 발휘를 하신 거고 의결을 할지 말지는 이 자리에서 평의원님들이 결정을 하시는 것이고 의원님들의 책임임. 만약 오늘 표결을 했을 때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모두 고려해 보았으면 좋

겠음. 지난 회의에서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는 6:1로 어찌보면 개별 구성원들의 동의와는 상반되는 표결 결과라고 외부인들은 해석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왔음. 개별 조직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입장들을 발표해왔고 학교 측이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길 요청해왔는데 충분하지 않았음. 그것에 대해 표결로써 얘기를 한 것임. 과연 그 표결을 반복하면 대학평의위원회가 더욱 역할을 잘하게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함. 개별 구성원들의 표결 권한은 여전히 있고 지난 주와 이번 주의 상황 변화를 의원님들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는 전적으로 동의함. 교원, 직원, 동문회와 함께 가장 중요한 구성원인 학생들이 지난 회의에는 표결에 참여해서 의사 표명을 하였으나 오늘은 참석하지 않아 이것을 뼈아프게 생각함.

- 의장 : 자연 총학생회장님은 참석을 하였음
- ○○○ 평의원 : 오늘은 학생회장님이 한 명만 참석한 것인지를 다시 질문함. 지난 번에는 두 학생회장님이 참석을 하였고 오늘은 자연 총학생에서만 참석을 하셨음. 지난 번과 다른 태도나 입장을 표명하실 수 있지만 두 총학생회가 다 출석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표결을 다시 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이 여러 사항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오늘 표결을 다른 분들이 동의하시면 표결할 용의도 있음. 그러나 표결의 실익이 있는 것인지는 의원님들이 먼저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을 드림
- 의장 : 의견 잘 들었음. 각 조직을 대표해서 오신 만큼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 평의원님도 지난 번에 ○○ 구성원 전체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서 의사 표명하기 곤란하시다는 고충 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에 그것과 관련하여 의견을 주시기를 바람
- ○○○ 평의원 :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 의장 : 다른 평의원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 ○○○ 평의원 : 어제 정기총회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서 ○○ 차원에서 통합 동의서를 작성하여 통추위에 전달하였음. 통합 동의서의 내용은 일부 단서를 달긴하였지만, 통합 동의서를 제출했음. ○○○ 평의원님과 ○○○ 평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공감되고 이해가 되는 상황임. 평의위원회가 개개인의 의원이긴 하지만 각 조직 구성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 구성원은 90% 이상이 동의를 한 상황에서 단순히 지난 번과 같은 스탠스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은 있었음. 학교의 행태가 상당히 이해할 수 없고, 통합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저는 학교 구성원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준비하고 스터디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함. 처음 회생안이 나온 2년 반 전부터 타학교 사례 스터디하고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면서 알고 있는 바들을 학교 측에 연착륙할 수 있는 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러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평의위원회가 만약 지난 번과 같은 결과를 유지하고 냈을 때 다음을 어떻게 해야할지 우려스러움. 의원님들 임기가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후를 대비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기에 의원님들의 마음에는 공감을 하지만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함. 재심 사유는 지금 말한대로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었고 통합 신청서의 내용도 일부 수정되었기 때문에 재심 사유로 받아들이고 통합 동의서 부분에 원하는 단서 조항을 달더라도 통합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는 것을 제안함

- 의장 : 새로운 의견이 나왔음. 앞서 두 분은 재표결을 하지 않는 것의 의견을 주셨고 ○○○ 평의원님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현재 신청서를 동의하도 조건부 동의를 하자는 의견을 주셨음. ○○○ 평의원님도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평의원회에서 이 안이 부결된 것까지는 아실 것이고, 이번에 다시 참여를 하시게 되었는데 한 번 부결된 안에 대해 의결 협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음
- ○○○ 평의원 : 부총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85%, 95% 동의율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 지난 번에 통합에 대한 동의서를 이미 한 바가 있음. 그런데 오늘 회의의 내용은 과연 통합에 대한 동의냐 아니면 폐과 없는 조건에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움. ○○○에서는 통합 이전에 회생을 위해서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 것임. 그 돈을 마련해서 채무를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안으로 통합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음. 명지대와 전문대를 통합하고 전문대 부지를 개발해서 550억원을 마련하는 채무 변제 계획이 나왔으며 그런 측면에서 통합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 그러나 최근에 통합을 하더라도 전문대 자리를 부지 개발을 안하고 한 캠퍼스로 활용할 것이라고 안이 나왔음. 채무 변제는 교육부의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자연캠퍼스 쪽에 유휴 부지를 매각해서 비용을 마련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음. 사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야기가 틀려지는 것임. 지금 지방대들이 문을 닫고 있고 명지전문대도 수도권에는 있지만 몇 년 뒤에는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음. 전문대하고의 통합이 회생을 위한 것인지 학교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는 한두달 전과는 보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음. 학교의 미래를 위해 통합하고 입학 정원을 늘리고 미래지향적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는 동의할 수 있음. 그러나 오늘 투표를 하느냐 마느냐 이 부분은 이미 서명을 한 부분을 뒤집으려고 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움. 오늘 표결이 폐과 그런 것을 전제로 한 통합이냐를 명확해 해주셨으면 좋겠음. 지난 번에 일정으로 회의 참석을 못하고 오늘 회의록을 받아서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음. 오늘 재심의를 해서 투표를 다시 하자는 의견과 할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시 투표를 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 95% 동의서에 서명을 하였고 ○○○도 찬성한다고 서명을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찬성과 반대를 표결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음. 구두로 말씀하시지 말고 조건부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주었으면 좋겠음. 이 조건을 보고 찬성할지 반대를 할지가 명확해질 것 같음
- 의장 : ○○○ 평의원님께서 지난 번 회의 참석을 못하셔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셨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도 똑같이 통폐합 신청서에 대해 표결을 해서 부결이 되었고 이에 대해 총장님께서 다시 한 번

회의 요청을 하셔서 재의결하시기를 위해서 오늘 회의가 재소집이 되었음

- ○○○ 평의원 : 이해를 했음. 지난 번 ○○에서 서명한 동의서 내용과 ○○, ○○ 임원이 서명한 동의서 내용이 모두 동일함. 이미 압도적인 숫자로 동의를 하고 ○○도 동의를 한 동의서와 다른 내용의 동의서를 주고 동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음. 이미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서에 찬성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다시 심의해서 찬반을 물어보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봄. ○○만 모든 ○○의 의견을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 임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미 동의서에 서명을 했음. 오늘 회의의 찬반 내용이 지난 번 동의서 내용하고 다르지 않다면 오늘 재심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의 내용이 바뀐 내용이 제시가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찬반 투표를 할 수 있음
- 의장 : 상황이 바뀌었으니 다시 재투표를 하자고 말씀하신 것인지 질문함
- ○○○ 평의원 : 내용을 구두로 하지 말고 어떤 내용을 동의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내용을 담은 정식 문서가 필요하다는 것임
- ○○○ 평의원 : 지금 의장님께서 총장님으로부터 서면으로 소집에 대한 요청서를 받으셨는지 질문함.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질문함
- 의장 : 대학평의원회 회의 개최 요청 공문을 읽어드리겠음. ‘대학평의원회 규정 7조 3항 관련하여 회의 개최를 다음과 같이 요청함. 1.요청 안건은 명지대학교 및 명지전문대학의 대학관 통폐합 신청에 관한 재심의 2.요청자: 명지대학교 총장 3.요청 사유: 가. 제11차 지난번 대학회 평의원회에서 명지대학교와 명지전문대학의 통폐합 승인 신청에 관하여 부결된 바 나. 양교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향한 내부 구성원의 단결된 의지를 보여줌이 중요하기에 구성원들의 많은 동의 외에 대학 평의원의 지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따라서 교육부와 협의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통합을 완수하고 교육부의 규제 개혁 움직임에 따라 더 많은 정원 확보를 위한 교육부 등 여러 외부 기관과의 협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당부와 함께 재심의를 요청함. 끝.’ 지난 번 부결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달라는 내용임
- ○○○ 평의원 : 지난 번 회의 이후 재심의 연락을 받아서 기획예산팀에 문의를 하였음. 회의 결과도 알려주지 않고 이번에는 무슨 회의를 하는 것인지 물어봐서 지난 번 찬반투표가 찬성 1: 반대 6으로 부결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의장님이 평의원회 개최를 하였으면 참석을 못한 의원들에게도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재심의 회의를 소집했어야 하는 것인데 듣지 못한 상태에서 재심의 소집 문자를 받았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임. 오늘 회의 오기 전에도 자연·인문 ○○○○에게도 직접 전화를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인지를 물어보았음. 통합에 대해 동의를 한 것이고 폐과에 대한 것은 반대를 하였다고 하였음. 하지만 문서상으로는 폐과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학교에서 준비한 동의서 내용에 폐과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면 양산이 달라졌을 것이고 ○○에서도 쉽게 찬성 서명을 못했을 것임. 85%, 95%의 교직원, ○○에서 서명받은 동의서 내용은 단지 통합에 대한 부분만 있었고 ○○○○과 ○○○○에서도 그렇기에 찬성 서명을 한 것임. 이것

은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동의서 양식부터 바꾸려고 노력을 안했던 책임이 있는 것임. 똑같은 내용이면 몇 명 되지 않는 평의회에서 표결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봄

- 의장 : ○○○ 평의원님도 의견 부탁드림
- ○○○ 평의원 : 별 다른 의견은 없음
- 의장 : 평의원님들 의견은 세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음. 1.신청서의 문구 바뀐 건으로 원안대로 재표결 2.동일안건이므로 표결이 필요 없음 3.현실은 감안해서 조건을 추가하고 조건 추가건에 대해 표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람
- ○○○ 평의원 : 지난 번 표결할 때 반대하셨던 분이 많으셨음. 구성원 개개인 온라인 설문조사한 것은 통합에 대해 동의하는 것인지만 묻고 있음. 동문회를 제외한 5개 구성원 조직이 성명서를 냈던 것도 통합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완전히 부정한다고 의견을 낸 적이 없음. 지난 표결도 통합 자체의 찬반투표가 아니라 통합이 실현되기 위한 진행된 학교와 통추위의 통폐합 신청서 내용에 대해서 표결을 한 것임. 거기에 통합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실현 가능한 그래서 명지대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안들이 충분히 담기지 않아서 반대를 한 것임. 지난 번 공청회의 아수라장을 생각해 보면 이성을 잃어서가 아니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소리 질렀던 것이 아니고 학교의 미래와 자기가 속한 과와 학문이 어떻게 존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했던 것임. 폐과와 폐과에 준하는 변화들이 충분히 구성원들에게 동의되지 않았고 그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공청회 때 이견들이 불협화음으로 표출되었고 철학과와 바독학과 교수님들이 엇그제 까지도 의견을 표현한 것임. 저는 지금까지도 지난 번 표결은 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표결이 아니라 통폐합 신청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찬반이라고 이해하고 있음. 이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없는데 표결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한가지 덧붙이면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남. 통폐합 신청서는 완결된 완벽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정책도 바뀌고 정원도 조정을 해야하고 결국 내년에 또 이렇게 회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음. 지금 통합신청서를 표결하고 만약 통과가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안들이 승인하는 것은 제가 해서는 안되는 권한이라고 생각함. 내년도 ○○○○에서 새로운 회장과 집행부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 통폐합 안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어야 하고, 오늘 12월 29일 이 시점에서 통폐합 신청서가 승인이 되어 내년 집행부가 어떠한 얘기도 할 수 없게 해서 학교와 통추위에 모든 통폐합 계획의 무한 권한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다시 한 번 지난 표결을 통합 자체 필요성에 대해서가 아니라 통폐합 신청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표결이었고, 내용이 충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았기에 내년에 재론이 될 여지가 있어야 함.
- 의장 : 의견이 통일이 되지 않고 있음
- ○○○ 평의원 : 3가지 안에 대해 그냥 표결을 붙이면 될 것 같음
- 의장 : 첫 번째 원안대로 재표결을 한다 총장님 심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의 한다고, 두 번째 동일한 건이므로 표결이 필요 없다, 세 번째 현실을 감

안해서 조건을 추가하여 표결한다 임. ○○○ 평의원님께서서는 조건을 궁금해 하셨는데, 어쨌든 어떤 조건을 달아서라도 재논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될 것 같음. 세 가지 안에 대해서만 표결하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추가될 내용이 있어야 될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묻겠음

- ○○○ 평의원 : ○○○ 평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늘 표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학교측에서 총장님의 소집에 정확한 이유와 사항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표결할 수 없음. 총장님께 재소집의 근거에 대해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함
- ○○○ 평의원 : 오늘 재심의를 한다고 해서 오늘 또 표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왔음. 보통 재심의를 요청하면 학교에서 의원들을 설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석했는데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음. 오늘 부총장님께서 공개석상에서 말씀하신게 다인 것 같은 느낌인데 그렇다면 지난 회의 때 6:1로 압도적 표차로 부결이 되었는데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는 평의원회에서 오늘 다시 표결을 한다고 해도 별반 다른 사항이 없을 것이라고 봄. 내용도 변한 것이 없고 참석자도 교체가 된 것도 아니어서 표결을 한다고 해도 다를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듦
- 의장 : ○○○ 평의원님 말씀은 동일한 안건으로 표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의결을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음 번 평의원회로 의결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 평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음. 다른 평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 평의원 : 표결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제안을 해주시고 제청 절차를 밟고 표결에 들어가면 됨. 지금 6분이 참석하셨는데, 표결이 반반이면 어떻게 되는지, 또는 예를 들어 4:2로 표결을 하였고 결과에 대해 한 사람이 표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퇴장을 해서 다섯 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함. 그렇게 되면 성원이 안되는 것임.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얘기를 해 봐야 필요가 없을 것 같음. 일단 표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제안해 주시고 동의 제청을 밟고 표결 필요성에 대해 표결을 해서 과반수 이상이 되면 표결에 돌입하는 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 ○○○ 평의원 : 오늘 표결을 형식적인 거가 된 것 같음
- ○○○ 평의원 : 지금 6분이 계시는데 3분이 표결할 필요가 있냐고 의견을 표명하셨는데 결국 지금 더 이상 논의하는게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 의장: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으나 3분이 표결을 해야 되느냐는 반대 의견을 주고 계셔서 난처함. 평의원회 의사 결정은 과반 찬성에 과반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는 구조이기에 결정하기 어려움. 일단 ○○○ 평의원님 말씀을 듣고 결정하겠음
- ○○○ 평의원 : 6분 중에 3분이 의견을 내셨지만 어쨌든 대학평의원회가 갖는 상징성도 있고 의원님들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바임. 지금 통



합을 위한 절차상 대학평의원회가 가장 효력을 가진 기관이고 또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제가 속해있는 구성원의 대다수가 통합에 대한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 평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통합 신청서의 내용에 대해서라는 의견을 주시기도 했지만 이것을 그냥 넘길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음. 내년엔 새로운 구성원으로 평의원회가 구성이 되고 대부분이 교체가 되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그대로 떠났고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똑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임. 저는 수정해서 표결을 하자고 제안을 드렸지만 이미 3분이 반대 의사를 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 같음

- 의장 :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3분이 재표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 평의원 : 3분이 반대 발언을 하셨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주장하는 것은 소모적인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 철회하도록 하겠음
- 의장: 그럼 재표결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음. 동의 제청 부탁드립니다
- ○○○ 평의원 : 동의함
- ○○○ 평의원 : 동의함
- ○○○ 평의원 : 동의함
- ○○○ 평의원 : 동의함
- 의장: 평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를 했고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통합에는 찬성을 하기 때문에 구성원들도 다 통합에 대해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번 회의에서도 부결이 된 것이라는 의견이었음. 평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함. 새로운 대학평의원회가 구성되서 다시 한 번 얘기할 수 있게되면 학교 측에서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오늘 명확하게 신청서에 대해 다시 표결을 해서 의견을 제출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생각함. 끝으로 평의원회 임기 중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성 단위 대표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총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결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감사님이 평의원이셨다가 그런 사유로 평의원을 사임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넘은 것 같음.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평의원님들 마지막으로 소회 한 말씀씩 간단하게 하고 회의를 마치겠음
- (평의원들 각자 소회 발표)
- 의장 : 마지막으로 평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 고생 많으셨음. 이것으로 12차 대학평의원회를 모두 마치겠음

2022. 12. 29.

작 성 자 : 기 획 예 산 팀      김 차 영 ㉠

확 인 자 : 기 획 예 산 팀 장      안 경 훈 ㉠